



‘유산증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눔입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캠페인 개도국 어린이 식량·교육 지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눔은 유산증여입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회장 현승종)가 유언을 통해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남기는 ‘유산증여’ 캠페인을 11월 10일부터 실시한다.

유산증여는 본인 뿐 아니라 상속인도 참여가 가능하며, 유니세프에 기부하는 사를 표시한 후 유언장을 작성하고 유언의 검증을 거쳐 진행되는 절차를 거쳐 된다. 유니세프에 기부한 재산은 모두 비과세 처리된다.

이렇게 모여진 유니세프 증여유산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의 영양 및 보건환경 개선, 교육지원, 재해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의 긴급구호활동에 쓰인다.

현재 개발도상국 5세미만 어린이 3명중 1명이 영양실조이며, 전 세계적으로 1억1천만명의 어린이가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1953년 한국전쟁 당시부터 1993년까지 40여년간 경제발전단계에 맞춰 총 2천3백만 달러의 분유와 담요, 의약품 등을 지원받아 왔다.

1994년 설립돼 도움을 받아야 했던 처지에서 공여국의 위치가 된 선진국형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442억원의 기금을 전 세계 개발도상국 어린이를 위한 영양, 보건, 기초교육, 긴급구호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현승종 회장은 “유니세프에 유산을 남기면 세계 어린이들에게 ‘생명유산’을 물려주는 셈이 된다”며 “유산증여는 굶주리는 어린이를 구하는 식량이 되고, 병든 어린이를 치료하는 약이 되며, 물이 없어 죽어가는 생명수가 되는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후원자개발부 080-733-7979, (02)723-8215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점심식사를 타기위해 순서를 기다리는 짐바브웨 초등학생들.



본사 서정만 이사(가운데)가 북한 및 불교국가, 세계 재난지역 돕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제이티에스에 의류를 전달했다.

“북녘동포에게 옷 전해주세요”

동대문·남대문 상인 등 2천여명 기증

“북한동포들에게 의류를 전달해줬으면 합니다.”

본사는 11월 4일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에 기증된 2천여벌(의류 6천여벌)의 의류를 한국제이티에스(이사장 범문)에 전달했다.

이날 한국제이티에스 의류 전달식에서 본사 서정만 이사는 “의류들이 북한을 비롯한 해외동포들과 불교국가, 해외재난지역에 전

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천여벌의 의류는 동대문 신명화상가 상인들이 1천여벌을, 남대문 한양니트 1천여벌, 박미숙(서울 서초동) 씨등 개인과 단체에서 20여벌을 기증했다. 기증의류는 스웨터와 그라운드티셔츠 니트류 스커트 티셔츠 바지 등이다.

김원우 기자

총지중 강남자활후견기관 개관

저소득층 자립서비스 제공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강남자활후견기관의 위탁 운영을 받은 총지중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우승은)은 11월 11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통리원에서 개관 봉사 및 현판식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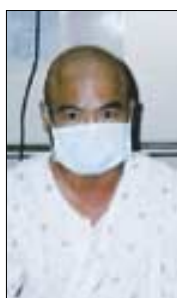
통리원 2층에 사무실을, 지하에 작업장을 마련한 강남자활후견기관은 앞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강남 지역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산후,

간병, 봉제, 차량 광택 및 세차, 자전거 이동수리 등의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여기에는 관장을 포함해 총 6명의 직원이 배치된다.

한편 강남자활후견기관은 근로능력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으로 자립서비스를 제공해 자활의욕과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2001년 7월부터 성모자애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나 내부사정으로 총지중 사회복지재단에서 인수, 위탁운영하게 된다. 박봉영 기자

“골수이식 했지만 치료비 막막합니다”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앓는 김영태 씨



2003년 11월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김영태(남·35·사진) 씨. 김 씨는 6월에 희망이었던 골수이식수술까지 마쳤으나, 그동안 진 빛의 상황과 앞으로의 치료비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씨는 간수치가 800이상이며(정상수치:25-50), 피부병변이 있어 회복여부에 집중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김영태 씨의 수술비는 농사를 짓고 있는 아버지가 대출을 받고, 큰형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해 마련한 돈으로 근근히 감당해왔다. 형제들마저 이제 더

이상의 재정지원은 어려운 상태다.

김영태 씨는 1996년 결혼 후 각종제품에 글자 새기는 일을 하면서 개인 사업체도 운영해 고정된 수입으로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다. 하지만 작년부터 자금난으로 사업체의 문을 닫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는데 이어 설상가상으로 백혈병이라는 선고까지 받았다. 더구나 어머니가 지난 6월 병원에서 골수이식수술을 앞둔 아들의 얼굴을 본 뒤, 정신적 충격으로 갑자기 운명하는 아픔도 겪어야 했다. 현재 가족들은 친척집을 오가며 지내는 형편이다. (02)734-8050

김원우 기자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해요”

보시중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을 수 있습니다.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서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센터 (02)737-8881
- (02)737-0090, 팩스(02)737-0697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 어떻게 참여하나

-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1구좌 1만원입니다.
- 모집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온라인구좌/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좋은벗풍경소리 (02)723-9836

■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기부)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봉사자들의 중개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산이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계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집합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 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현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현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해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야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